

전남도, 지역 주력산업 위기·농정 현안 극복 총력

김영록 지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면담
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깨씨무늬 피해 벼 전량 매입 등 건의

전남도가 정부 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RE100'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최근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를 울상 짓게 만든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 벼 전량 매입 등 시급한 농정 현안 해결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서울과 세종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과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김정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 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광양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2025→2027년), 여수산단 '화학 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산단 '수소환원 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여수·광양산단을 '대규모 공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시범사업 및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우선 대상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관련해, RE100 산단 전기요금 50% 이상 할인, 예타 면제·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규제 특례,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함께 전남 서남권을 '국내 1호 RE100 시범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국산 공급망 완성을 위한 광

양만권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과 국내 유일의 대·중·소형 조선업 클러스터인 전남 서남권에 'AI 자율 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AI 전용 통신망 등 스마트 야드 인프라 조성, 공정별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 전남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후 세종으로 이동해 송미령 장관을 만나 솔라시도 중심의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간척지 내 태양광 설치 활용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상고온으로 피해가 급증(전년 대비 2.8배↑)한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함께 피해조사 후 복구비 지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강력히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흥군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에서 농업재해 인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AI 첨단 농산업 콤플렉스 조성(예타 대상 선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전타당성 연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농식품부 소속기관화 등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 등 전남도 건의 현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과 에너지·농정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도민이 염원하는 주요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을 정취 물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나주시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2025 영산강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코스모스와 댄서리가 만발한 정원을 꼬마 열차를 타고 지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I 중심도시’ 광주에 세계 석학·혁신기업 모인다

15~16일 DJ센터서 ‘AICON 광주 2025’ 개최

광주시가 'AI 중심도시' 위상을 증명하기 위해 'AICON 광주 2025'로 세계 석학과 혁신기업을 불러 모은다.

시는 산업·도시·시민 생활 전반을 바꾸는 인공 지능 전환(AI)의 시험무대로 거듭나기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5~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가 개막한다.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전환(AI)의 실증 무대를 광주에서 펼쳐 산업·도시·시민 생활을 바꾸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전환(AI)의 물결이 광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의 'The AX 웨이브(Wave)', 광주(Gwangju)'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시와 인공지능기업 10개사는 15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동 추진한다.

기조강연은 김진형 KAIST 명예교수가 국내 AI 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짚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유영진 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를 제시한다.

특별강연에는 가상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북경우전대학교 차오 위안위안 교수, 싱가포르 그라운드(Ground) AI 레오 지앙 CEO가 참여해 한국·중국·싱가포르의 정책과 산업 동향을 비교한다.

특별좌담회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전략과 AX 실증밸리 추진 조건을 점검한다.

이어지는 세션 1~6에서는 반도체 패리스(설계),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동향과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과 신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행사와 연계한 'AI 테크플러스(TECH+) 2025' 전시는 15~17일까지 이어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혁신이 물결처럼 확산되는 지금,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의 길'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내외 성공사례를 토대로 지역 역량을 결집해 AX 실증밸리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성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원 공백 안돼”...국민신문고 대신 ‘광주신문고’

광주시,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가 중단된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 온라인 접수창구 '광주신문고'를 구축해 13일부터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우편·방문에 의존하던 임시 접수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민원 공백과 처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직후 부서별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해 창구 접수를 병행하고, 접수 건은 수기 관리로 처리해왔다.

다만 국가 단위 시스템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자체 시스템으로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광주신문고'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전용 메뉴를 마련해 운영된다.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성격의 제보, 일반 민원, 공무원 제안까지 한 곳에서 접수하고, 접수·처

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해 대면 방문 부담을 낮췄다.

시는 접수부터 배정, 처리, 회신까지 내부 전산으로 연동해 긴급 민원과 생활 불편 민원이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이동·대기 시간을 줄이고, 부서 간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재 여파로 중앙 시스템과 연계한 인증·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 확인 절차를 단순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국가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광주신문고'를 보완적 창구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기치 못한 장애나 트래픽 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단위 백업 창구를 상시 확보하면, 재난·사고 시에도 필수 민원 기능을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반려견·반려묘 광견병 예방접종

15~31일 접종비 5000원

광주시는 가을철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접종비는 통상 2만원 안팎이지만 5000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였고, 지정 동물병원 87곳에 3820마리 분량의 백신을 배정

했다. 접종 대상은 광주지역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동물등록증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등록장치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개와 고양이가 임신 중이거나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이 제한될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위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을 축제 한마당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2025. 10. 16 ~ 10. 19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2025 남원 국가유산가요제

2025. 10. 16 ~ 10. 19 | 남원 광한루원 일원

제33회 흥부제 Heungbu Festival

2025. 10. 17 ~ 10. 19 | 남원 사랑의광장 일원